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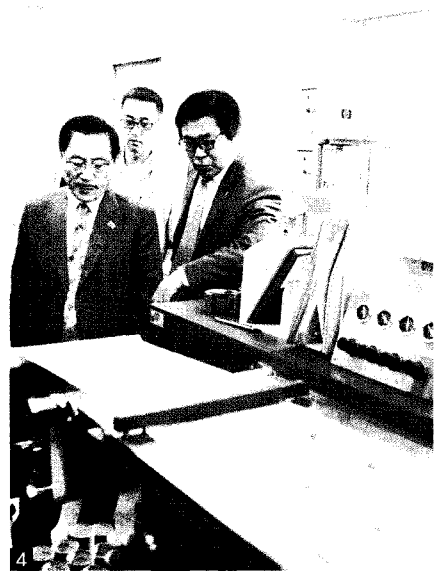
인디고 WS4500 도입식 및 디지털 사업부 발족식

레이블인쇄분야 디지털 시대 선도



대화UCP(대표 김정전)는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엠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인쇄기 도입식 및 '디지털 사업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을 비롯, 신승남 전 검찰총장, 한국HP 김병수 상무를 비롯한 내빈과 인쇄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인협 김남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은 살아 있는 도전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김정전 사장의 뛰어난 안목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전 사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인쇄품질과 후가공 라인을 구축하여 고객사들의 이윤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HP의 김병수 상무는 “HP는 레이블등 특수인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지원해왔다”며 “대화UCP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조직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으며 한국HP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 인디고 WS4500로 작업된 다양한 인쇄물을 전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조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인사말에 이어서 새롭게 도입된 HP 인디고 WS4500에 대한 소개의 시간이 있었으며 호텔에서의 행사가 끝난 후에는 2부 순서로 대화UCP 사옥에 설치, 가동 중에 있는 주요 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 출발 다짐

대화UCP는 이날 행사의 의미를 단순한 회사 이름 개명 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회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하며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신규 사업부의 목표

1. 대화UCP 인디고 WS4500 도입식 테이프커팅에 참석한 내빈들 2. 대화UCP 김정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3. 축사를 하고있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4. 대화UCP에 가동중인 장비를 둘러보고 있는 내빈들 5. 대화UCP 디지털 장비 도입식 및 사업부 발족식 행사장 전경

는 고객사들의 수익 증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3세대 프레스인 HP 인디고 프레스 ws4500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디지털 솔루션으로 최적의 인쇄 효율성 및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레이블인쇄 분야의 전문기업인 대화UCP와 관련된 주요 기능으로 최소 1개에서 5만개에 달하는 레이블을 인쇄할 수 있어 폭넓은 작업이 가능하며 가변 데이터 인쇄로 고객의 이름을 제품에 인쇄하여 자산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평한 용지 및 엠보싱지 용지와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온 표준 용지도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Teslin, 비닐 및 PVC 등을 포함한 합성 물질, 경화 제품과 같은 특수 표준용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고 WS4500의 인쇄 속도는 4색 모드에서 분당 16m이며 단색 또는 2색 인쇄에서는 분당 32m의 작업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